

##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 영향요인

김혜선<sup>1</sup>, 박효진<sup>2\*</sup>

<sup>1</sup>신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sup>2</sup>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 Factors on the Economic Burden of Middle Age Householder Supporting the Family

Hye-Sun Kim<sup>1</sup>, Hyo-Jin Park<sup>2\*</sup>

<sup>1</sup>Dept. of Social Welfare, Shingu University

<sup>2</sup>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Hyups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부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중·장년층의 고용환경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에 더하여 노부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중·장년기 가구주들은 본인의 노후준비도 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세대이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있는 중·장년기 가구주는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노후준비에 소홀하게 되고, 향후 노인빈곤층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진다.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은 40대-60대 중·장년기 가구주 중 노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부양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미취업, 주거자가보유, 취업가구원수, 원소득, 가족관계만족도의 요인들이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교육정책, 사회보장 및 소득재분배정책, 고용정책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conomic burden of middle age householders supporting their family. They could not prepare for their later life because they are supporting their parents and children in their unstable employment. This study examined how to decrease the burden of middle age householders.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analyzed data by hierarchical regression. The result showed that age, gender, education, unemployed, ownership of the house, number of employees, monthly income,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had an effect on the economic burden of support by middle age householders. Based on the result, the researchers offered political suggestions for decreasing the levels of economic burden of support by middle age householders.

**Keywords** : children supporting, economic burden of support, parent supporting, the middle age, the middle age householder

### 1. 서론

2014년에 OECD가 발표한 ‘실질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 보고서[1]’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실질적

은퇴연령(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연령)’은 71.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샌드위치 세대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2-5].

본 논문은 신구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o-Jin Park(Hyupsung Univ.)

Tel: +82-2-980-9737 email: jinjin0905@daum.net

Received April 28, 2016

Revised June 2, 2016

Accepted July 7, 2016

Published July 31, 2016

현재 우리나라 40대-60대의 중·장년기가구주들은 본인의 노후뿐만 아니라 노부모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까지 지고 있는 샌드위치 세대이다. 이들은 노부모 부양과 자녀부양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중·장년기 가구주 본인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6]. 과거에는 주로 장남이 노부모의 부양부담을 책임졌지만, 시대의 변화로 출생순위는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 책임감과 무관하게 되었다[7]. 여기에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중·장년기 가구주들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 기간은 당분간 단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중·장년기 가구주들은 노부모 부양부담 못지않게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도 상당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중·장년기 가구의 대다수가 사교육비 지출을 가계의 필수지출처럼 여기고 있으며[7],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은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들이 재취업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 될 정도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3, 8]. 최근 들어 자녀의 경제적 부양비용은 미성년자녀뿐 아니라 성인 자녀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높은 대학진학률과 고액의 대학 등록금 등 성인 자녀의 학자금은 중·장년기 가구주들의 소비지출 항목 중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6] 심각한 청년 취업난 때문에 성인 자녀의 취업사교육비까지 중·장년의 부모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9].

그렇다면 중·장년기 가구주들의 노후준비상황은 어떠한가? 보건복지부(2011)가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40-50대의 노후준비율은 45%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10].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이 49세이고, 평균수명이 80세[11]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중·장년기 가구주들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전력할 수 없는 이유로 노부모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꼽고 있는데[3, 6, 12], 우리나라 중·장년기 가구주들의 고용환경 불안정성은 심화되지만, 노부모 및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년기 가구주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함에도 정작 자신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수준은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13].

중·장년기 가구주들의 미흡한 노후준비 상황은 이들이 향후 빈곤노인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OECD의 「Pension at a Glance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2013년 도보다 증가하였으며, 34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14].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의 소득대체율(2012년 기준)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주요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70-80% 수준보다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15]. 게다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55.1%가 주요 노후준비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고 있어 경제적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중·장년기 가구주들의 노후생활은 상당히 염려된다. 노인의 빈곤은 개인적 측면에서 정서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16-18],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인부양비용 증가와 공적이전의 부담 증가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장년기 가구주들의 부양부담을 감소시켜 이들이 자신들의 노후준비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중·장년기 가구주들의 부양부담에 관하여는 여러 측면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 중에는 노부모 혹은 자녀 중 일부만 포함하였거나[4, 13], 부양자의 범위를 다소 좁게 정의하거나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진행한 연구도 있었다[2, 3, 19]. 혹은 부양부담 동기의 이론적 측면[20, 21]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은 노부모와 자녀를 모두 포함하는 이중적 특성이 있고, 노후준비나 경제적 부양 부담 역시 개인적 차원보다 가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이러한 요인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 및 자녀를 부양하는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이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 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장년기 가구주의 연령과 경제적 부양부담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중·장년기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노부모 및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지만[21], 연령과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2, 12]도 있다. 반면에 연령과 경제적 부양부담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23]도 있어,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학력과 경제적 부양부담에 관해서는 주로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에 대한 결과만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중·장년기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20, 23]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결과[24]도 있어 이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가구구성원 중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양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3]. 그리고 근로활동을 하고 있을 때 경제적 부양부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 21].

## 2.2 가구특성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7]. 월소득수준과 경제적 부양부담은 다수의 연구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었으나[4, 9, 23, 24] 월소득수준과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이 부적관계를 보이는 연구결과도 있어 이 요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20]. 가구의 자산수준은 선행연구에서 경제적 부양부담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4].

## 2.3 가족관계특성

노부모 부양부담은 중년 여성들의 부부관계 및 삶의 만족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19, 25], 노부모의 경제적 부양부담과 가족갈등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26].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비추어볼 때, 한 가구의 경제적 부양부담은 특정 가족구성원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므로 경제적 부양부담과 가족관계특성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 3. 연구방법

## 3.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 부담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9차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7,072가구를 표본을 선정하여

2016년 1월 현재 10차 조사까지 진행되었으며 9차 데이터까지 공개되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일반적인 사항 외에도 가구의 생활비·재산·소득·부채·주거 등의 경제적 요인 및 경제활동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실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인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 정도 및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데 적합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9차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장년기 가구주로 연구진행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에서 40-60대인 중·장년기 가구주를 먼저 선정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관계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인가구 및 사별·별거·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 부부관계 관련 특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자료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얻게 된 분석자료는 총 2,389명이며, 이 중에서 경제적 부양 부담이 없는 연구대상자는 400명(16.7%), 부모 혹은 자녀 한쪽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이 있는 연구대상자는 900명(37.7%), 부모와 자녀 모두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이 있는 연구대상자는 1,089명(45.6%)으로 구성되어 있다.

## 3.2 변수정의 및 측정

### 3.2.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양 부담’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7]에서 정의된 경제적 부양부담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경제적 부양부담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및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는 1, 부모 또는 자녀 어느 한쪽에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는 2,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는 3로 설정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 3.2.2 독립변수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특성, 가족관계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중 성별은 남성(1),

여성(2)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교 졸업 이상(4)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건강상태는 연구대상자가 조사 당시 판단하는 건강상태를 의미하며 아주 건강하다(1), 건강하긴 편이다(2), 보통이다(3),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4), 건강이 아주 안좋다(5)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연구대상자가 판단하는 건강상태가 좋을 것을 의미한다. 근로형태는 임금근로자(1), 미취업(2), 고용주·자영업(3)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에는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전세·월세·보증부월세 등은 자가 아님(0), 자가(1)로 구분하였으며 취업가구원 수는 전체 가구원 중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주·자영자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의 수로 측정하였다. 월소득은 가구주와 가구원의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 사회보험·민간보험, 기타 정부보조금, 증여·상속, 경조사, 보상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부동산자산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가구원 전체의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금융자산은 가구원 전체의 예금, 적금, 주식·채권·펀드, 껌돈 등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특성은 가족생활만족도와 부부관계만족도는 가족생활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1)부터 매우 만족(7)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자가 현재 판단하는 가족생활 만족도와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제적 부양부담 정도에 따라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로형태, 주거, 취업자수, 월소득,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가족생활만족도,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해 교차분석과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전제조

건인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 하였다. 이후 ‘경제적 부양부담이 없는 집단’, ‘부모와 자녀 어느 한쪽에 경제적인 부양부담을 하고 있는 집단’, ‘부모와 자녀 양쪽에 경제적인 부양부담을 가지고 있는 집단’ 등 세 범주로 구분되는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경제적 부양부담이 없는 집단을 기준변수로 하여 부모와 자녀 어느 한쪽에 경제적인 부양부담을 하는 집단과 부모와 자녀 양쪽에 경제적인 부양부담을 하는 집단의 상대적 영향요인과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SPSS 22.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4. 분석결과

### 4.1 경제적 부양부담에 따른 특성

연구대상자인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따른 특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참고).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경제적 부양부담이 없는 대상자는 40대보다는(31명(7.8%)) 60대(233명(58.3%))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양쪽으로 경제적 부양부담이 있는 대상자에서는 40대가 611명(56.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60대가 131명(12.0%)으로 경제적 부양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상자일수록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성별의 경우에는 모든 집단에서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가 가구주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경제적 부양부담이 양쪽 모두에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 대학원 졸업 이상이 545명(50.0%), 고등학교 졸업(41.0%)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연구대상자에 비해 경제적 부양부담이 양쪽 모두에 있는 연구대상자들이 건강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형태의 경우에도 임금근로자 및 고용주·자영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 양쪽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을 가지고 있는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거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가라고 응답한 경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Spec.	Economic burden-None	Economic burden-One side	Economic burden-Both	$\chi^2 / F$	
Age	40-49	31(7.8)	218(24.2)	611(56.1)	497.001***
	50-59	136(34.0)	348(38.7)	347(31.9)	
	60-69	233(58.3)	334(37.1)	131(12.0)	
Gender	Male	360(90.0)	861(95.7)	1082(99.4)	76.051***
	Female	40(10.0)	39(4.3)	7(0.6)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05(26.3)	129(14.3)	29(2.7)	340.806***
	Middle School	78(19.5)	133(14.8)	68(6.2)	
	High School	154(38.5)	386(42.9)	447(41.0)	
	≥University	63(15.8)	252(28.0)	545(50.0)	
Health status	Very good	33(8.3)	117(13.0)	210(19.3)	135.766***
	Good	180(45.0)	526(58.4)	661(60.7)	
	Moderate	108(27.0)	161(17.9)	162(14.9)	
	Poor	67(16.8)	89(9.9)	51(4.7)	
Employment Form	Very Poor	12(3.0)	7(0.8)	5(0.5)	201.058***
	wage earner	199(49.8)	516(57.3)	775(71.2)	
	employer · self-employed	93(23.3)	299(33.2)	270(24.8)	
Ownership of the house	unemployed	108(27.0)	85(9.5)	44(4.1)	13.297**
	No	107(43.8)	310(34.4)	370(34.0)	
	Yes	225(56.3)	590(65.6)	719(66.0)	
Num of employee	mean/S.D	1.92(1.16)	1.99(.97)	1.76(.74)	18.139***
Monthly income	mean/S.D	347.05(297.15)	445.46(419.09)	504.06(298.19)	30.304***
Real estate asset	mean/S.D	31155.13(49995.65)	13083.40(31827.98)	9223.99(23193.09)	1.686
Financial asset	mean/S.D	4876.95(11625.33)	5329.09(8232.64)	6063.49(9643.62)	2.810#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ean/S.D	5.01(1.24)	5.40(1.05)	5.69(.95)	66.815***
Marital relationship satisfaction	mean/S.D	4.89(1.41)	5.35(1.19)	5.63(1.00)	66.390***

#p<.1, \*p<.05, \*\*p<.01, \*\*\*p<.001

는 한쪽에 경제적 부양부담이 있는 경우와 양쪽에 경제적 부양부담이 있는 경우 각각 65.6%, 66.0%로 나타난 반면 경제적 부양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56.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취업자수는 양쪽에 경제적 부양부담이 있는 경우가 1.76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난 반면에 월소득은 약 504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은 경제적 부양부담이 없는 집단이 약 3억 1,15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금융자산은 양쪽으로 경제적 부양부담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평균 6,06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양쪽에 경제적 부양부담이 있는 경우 5.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만족도 또한 5.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부양부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4.2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 영향 요인

본 연구의 목적인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 확인,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의 정도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이로 인한 연구모형의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양부담이 없음’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와 자녀 어느 한쪽에만 경제적 부양부담을 하고 있음’, ‘부모와 자녀 양쪽에 경제적 부양부담을 가지고 있음’의 상대적 영향요인과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참고)

분석결과 경제적 부양부담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chi^2=40.963$ ,  $p<0.001$ ),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 변량 중 약 32.7% (Nagelkerke  $R^2=0.327$ )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어느 한쪽에만 경제적 부양부담을 하고 있는 집단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연령( $\text{Exp}(\beta)=31.779$ ,  $p<0.001$ ), 고용주·자영업( $\text{Exp}(\beta)=9.950$ ,  $p<0.01$ ), 미취업( $\text{Exp}(\beta)=10.902$ ,  $p<0.001$ )이 경제적 부

Table 2.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Independent variable		Economic burden-One side			Economic burden-Both		
		B	Wald	Exp(B)	B	Wald	Exp(B)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stant	1.119	2.476		2.384	7.520**	
	Age	-.589	31.779***	.555	-1.368	15.747***	.255
	Gender	-.111	.154	.895	-1.538	10.446**	.215
	Education	.111	2.387	1.118	.4995	35.142***	1.640
	Health status (wage earner)	-.129	2.767	.879	-.122	2.034	.885
	employer · self-employed	.491	9.950**	1.634	.421	6.174*	1.523
	unemployed	-.656	10.902***	.519	-1.093	19.720***	.335
Family Characteristics	Ownership of the house	.356	6.495**	1.428	.640	17.992***	1.896
	Num of employee	-.127	3.332	.881	-.373	22.725***	.689
	Monthly income	.008	7.431**	1.008	.002	5.162**	1.003
	Real estate asset	.061	.024	1.063	.081	.254	1.085
	Financial asset	.290	.106	1.336	.017	.293	1.018
Family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058	.556	1.059	.205	5.378*	1.225
	Marital relationship satisfaction	.098	1.800	1.103	.035	.181	1.036
-2Log Likelihood		801.657					
Model chi-square		40.963***					
Nagelkerke		.327					

\* $p < .05$ , \*\* $p < .01$ , \*\*\* $p < .001$

양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형태가 임금고용자 보다는 고용주·자영업에 종사할수록, 미취업보다는 임금고용자일수록 중·장년기 경제적 부양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구특성에서는 주거 자가보유(Exp( $\beta$ )=6.495,  $p < 0.01$ ), 월소득액(Exp( $\beta$ )=7.431,  $p < 0.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를 자가로 보유한 경우에 경제적 부양부담을 할 가능성이 6.49배 높아지며, 월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양부담을 할 가능성이 7.43배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 양쪽에 경제적 부양부담을 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연령(Exp( $\beta$ )=15.747,  $p < 0.001$ ), 성별(Exp( $\beta$ )=10.446,  $p < 0.01$ ), 교육수준(Exp( $\beta$ )=35.142,  $p < 0.001$ ), 고용주·자영업(Exp( $\beta$ )=6.174,  $p < 0.05$ ), 미취업(Exp( $\beta$ )=19.720,  $p < 0.001$ )이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특성에서는 주거 자가보유(Exp( $\beta$ )=17.992,  $p < 0.001$ ), 취업 가구원수(Exp( $\beta$ )=22.725,  $p < 0.001$ ), 월소득(Exp( $\beta$ )=5.162,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특성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Exp( $\beta$ )=5.378,  $p < 0.05$ )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양부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한쪽에만 경제적 부양

부담을 하고 있는 집단과 부모와 자녀 양쪽으로 경제적 부양부담을 하고 있는 집단의 영향요인을 비교해보면, 어느 한쪽에만 경제적 부양부담을 하고 있는 집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성별, 교육수준, 취업 가구원 수, 가족관계 만족도가 양쪽으로 경제적 부양부담을 하고 있는 집단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부양부담이 없는 집단을 기준으로 볼 때 어느 한쪽만 경제적 부양을 하는 집단보다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경제적 부양부담을 하는 집단 즉, 부양부담의 정도가 더 높은 집단에서만 성별이나 교육수준, 취업 가구원 수, 가족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부모 및 자녀를 부양하는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양부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양부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고선강(2011)이나 정순돌·이현희(2012) 등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은 사교육비를 포함하고 있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교육열과 더불어 교육수준이 사회적 지위, 직업선택, 각종 사회적 혜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이 사회이동의 유일한 통로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경험을 한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더욱 상급학교와 일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사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이러한 경제적 부양부담은 부모의 노후준비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7], 향후 노인빈곤층이 될 가능성을 높게 된다. 사교육과 공교육은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며, 현실적으로 공교육이 모든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교육에 대한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측면과, 경제적 부양부담의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EBS 수능방송을 포함한 이러닝(e-learning)체제 구축,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 공교육에서의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등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미취업 근로자에 비해 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 보다 고용주·자영업자가 경제적 부양부담을 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자산 및 금융자산보다 월소득이 경제적 부양부담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기 가구주의 근로형태가 안정적일수록 부모나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연구결과[20, 21]이며, 우리 사회가 아직 가족 간의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관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많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수명연장으로 부모에 대한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은 과거보다 증가하였으며, 실업률 증가 및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녀세대의 경제적 자립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가족에게 지원받지 못하는 노부모나 성인자녀들이 겪을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공적 영역에서의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며, 자녀들의 부양의식은 점차 줄

어지고 있다. 현재 노령세대 중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진 경우는 30%정도에 불과하며, 2014년부터 무작출연금인 기초연금이 시행중이지만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 지급으로는 노부모에 대한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지원을 대신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장년기 가구주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 노인을 별도로 표적화한 공적부조적 소득보장 장치를 마련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소득보장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장년기 가구의 가구원 중 취업한 가구원의 수가 적을수록 경제적 부양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20대 이상 성인의 취업률이 하락하고, 성인 자녀의 취업 사교육비 부담까지 중·장년기 가구주가 부담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실업률은 3.2%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8.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실업률은 약 2.6배정도 높은 편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공무원 시험 및 자격증 준비생들의 경우에는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더 높을 수 있다. 이처럼 높은 청년실업률은 부모세대인 중·장년기 가구주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중·장년기 가구주의 미흡한 노후준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청년층의 실업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기 보다는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 및 고용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고용정책의 경우에는 청년실업의 원인이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와 같은 거시적인 고용흡수력의 저하, 경력직 선호, 신규채용 저하, 산업수요와 괴리된 인력을 과잉 배출하는 고학력화 추세,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 기능의 취약 등과 같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특성, 가족관계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향후 각 변수들과 경제적 부양부담 영향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추가 연구가 진행된다면 실제로 정책수립을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References

- [1] OECD, Society at a Glance 2014 : OECD Social Indicators, 2014.
- [2] J. M. Kim, K. W. Um, "A Study on economic preparation for the elderly life of baby-boomers focused on families'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16, No. 4, pp.197-221, 2014.
- [3] W. S. Choi, J. S. Lee,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for work plan of female babyboome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4, No. 1, pp.299-327, 2014.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4.34.1.299>
- [4] S. M. Kim, S. K. Koh, "Intergenerational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in the middle-aged",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6, No. 2, pp. 59-76, 2012.
- [5] H. S. Jeon, M. Y. Kim, "The Relationships of the Caregiving Awareness, Caregiving Appraisal for Middle-aged and Senescent Life Plan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2, pp. 206-231, 2012.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2.32.2.206>
- [6] H. J. Kho, S. H. Jung, "A Study on the typology of Korean retirees by using the method of mixture model", Consumption Culture Study, Vol. 16, No. 1, pp. 61-88, 2013.
- [7] J. K. Kim, "Economic Burden of Support by the Baby Boom Generation", Monthly Labor Review, Vol. 63, pp. 21-36, 2010.
- [8] Y. M. Jang, Y. L. Hur, M. S. Jung, "A study on the Wellness Change of Life in the Baby Boomer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3, pp. 215-220, 2015.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5.13.3.215>
- [9] J. Y. Park, B. J. Kim, "Analysis on the differences in the participation and cost of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Vol. 21, No. 1, pp. 285-308, 2012.
-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 [11] Statistics Korea, 2015.
- [12] S. D. Chung, H. H. Le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haracteristics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A comparison of babyboomers and the pre-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8, pp. 209-231, 2012.
- [13] K. H. Jeong, S. Y. Park, "The effects of family care giving-burden on middle-aged people's preparation for old age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63, pp. 115-147, 2014.
- [14] OECD, "Pension at a Glance 2015", 2015.
- [15] B. S. Kim, "A poverty of the older workers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come replacement rate of pension", Monthly Labor Review, Vol. 120, pp. 100-102, 2015.
- [16] S. J. Lim, S. Y. Auh, "The influences from the retirement provision in terms of financial, relational, and residential aspects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middle aged Korean",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Vol. 20, No. 3, pp. 45-64, 2015.
- [17] Y. B. Kim, S. H. Lee, "The Depressive Symptom and Poverty in Later Life : Interaction Effect between Poverty and Informal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2, pp. 401-411, 2015.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5.13.12.401>
- [18] Y. B. Kim, J. S. Park, "The Family Network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4, No. 1, pp. 169-185, 2004..
- [19] S. G. Lee, "Factors Affecting Baby Boomer's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73-86,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0.73>
- [20] S. C. Ha,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f income transfer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Focusing on parents as beneficiaries and children as providers", Family and Culture, Vol. 24, No. 2, pp. 101-136, 2012.
- [21] S. K. Koh,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in the Middle and the Early Old Aged : An Effect of Financial Resource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5, No. 1, pp. 157-175, 2011.
- [22] S. D. Chung, Y. S. Kim, " Factors Influencing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Baby-boomers and the Pre-elderly: Focused on Sex Role Perception and Caregiving Burd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8, No. 4, pp. 181-197, 2014..
- [23] N. I. Sung, S. W. Hong, "An Empirical Study on the Korean Household Expenditure for Private Tutoring",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Vol. 10, No. 3, pp. 183-212, 2009.
- [24] J. S. Jung, H. H. Kim, "Analysis on the Influential Factors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Vol. 18, No. 3, pp. 89-122, 2009.
- [25] Y. J. Kim, J. A. Kim, H. S. Ka, "The Effect of Caregiving Stress on Depression among Korean Married Adult Children of Korea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563-570,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0.563>
- [26] Y. J. Park, I. U. Song, "The analysis on the causal model the burden of family conflict, family support and caregiving burde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39, pp. 53-77, 2008.

---

**김 혜 선(Hye-Sun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1년 8월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신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조교수

<관심분야>  
가족복지, 가족상담

---

**박 효 진(Hyo-Jin Park)**

[정회원]



- 2006년 8월 : 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10년 2월 : 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1년 9월 ~ 2016년 2월 : 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협성대학교 외래교수

<관심분야>  
소득보장, 빈곤, 일-가족양립, 돌봄노동